

보성군, 세계가 찾는 말차 '보성차 제2부흥기' 본격 시동

K-말차 시대 여는 보성, 식품·제과·제빵·음료·주류 시장까지 확대... 차산업 재도약

전 세계적인 말차 열풍이 프리미엄 식품·웰니스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차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이 '보성차의 제2부흥기'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서고 있다.

보성군은 국내 차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억 원을 투입해 재배 환경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생육 관리 시스템 구축, 평지형 다원 조성, 기계화 수확 확대, HACCP 기반 가공시설 확충 등 생산 전반을 과학화·표준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유기인증(유럽·미국 기준) 면적을 80ha까지 확대해 고품질·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를 완비했다.

국내 농업이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속에서도 보성군의 기술 혁신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2014년 100.3kg에서 2024년

127.8kg으로 약 27% 증가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세계적인 말차 수요 증가로 보성산 차 수출량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은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한중 정상회담' 만찬 후식으로 '보성녹차'가 공식 제공되며 국제적 신뢰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보성산 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성군은 온라인 플랫폼(보성물·우체국 소핑 등)을 통한 비대면 판매 확대, 전국 박람회 참가,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유통 기반 확충과 말차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말차는 물론 녹차 제품 전반의 판매가 급증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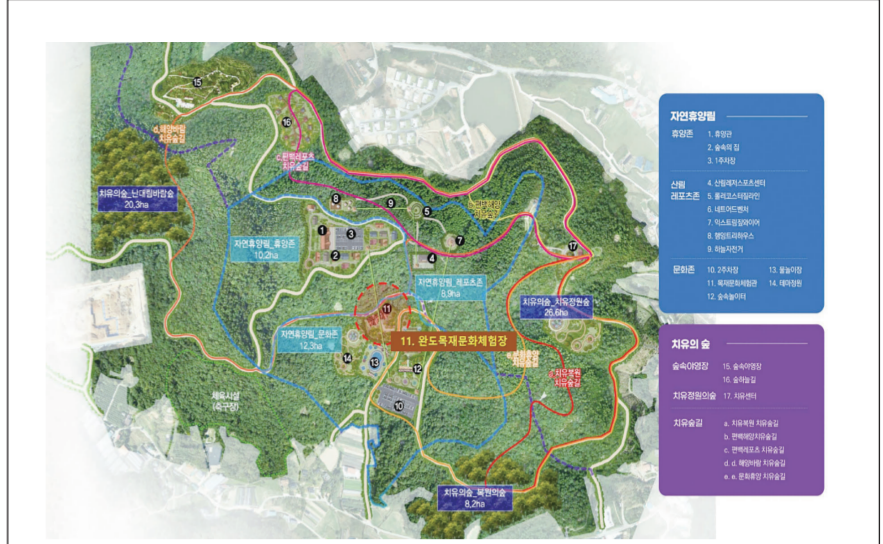


보성녹차가공유동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30톤의 차잎을 수매해 이 중 약 80%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재고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총 246톤을 수매했음에도 전량을 즉시 판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년도 이월 재고 또한 모두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차 구하기 대란'이라는 표현

까지 나오고 있다.

보성차생산자조합 서상균 조합장은 "올해는 조합 창고에 재고가 남지 않을 정도로 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라며 "시장에서도 말차를 포함한 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완도군, 80억 투입 산림치유단지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목재 체험실, 나무 상상 놀이터, 목재 정원 등

완도군은 완도읍 가음리 편백숲 일원 산림치유단지 내 '목재 문화 체험장'을 조성한다.

총 사업비 80억 원(도비 64억, 군비 16억)이 투입되며, 2026년부터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은 지역별 특색 있는 목재 문화를 기반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에 다양한 계층이 목재 문화를 체험하고, 전문 목공기능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험장은 5,000㎡ 부지에 건축 면적 1,500㎡ 규모로 조성되며, 1층에는 목재 체험실, 목공 작업실, 자재실, 2층에는 나무 상상 놀이터, 나무 쉼터, 전시 판매실 등을 갖춘다.

아외에는 목재 정원과 전시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황칠 천연림이 분포하며 삼국시대 이전부터 황칠 공예가 전승적으로 이어져 오

고 있다.

이에 '완도 황칠'을 활용한 독창적인 목재 문화 체험 콘텐츠 등을 개발·운영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어 앞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다 지역 목재 문화 체험장과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험장에서 만든 목공예품을 출품하는 '목공예 페스티벌'을 개최해 주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불가시나무 숲 등 완도의 전통적 산림·목재 문화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치유산업 확대 사업 일환으로 산림치유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지 내 숲속 아영장과 휴양림, 산림 레포츠 시설, 치유의 숲 등과 더불어 목재 문화 체험장까지 들어 서면 다양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장선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확정을 기념해 도민,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대규모 환영 대축제를 마련한다.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여는 국가 핵심 연구시설 유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환영 대축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환영 대축제' 개최

오는 16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서 전라남도-나주시 공동주최

행사에는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 국회 의원, 도·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기관 및 단체장,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인공태양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비전선포 세리머니,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비전선포 세리머니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과 함께 불꽃, 꽃가루 등 특수효과 연출을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환영 분위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총사업

비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나주시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유치를 통해 나주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함께 이뤄낸 성과인 만큼 모두가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순천시가 지난 10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최 '2025년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한마당 경진대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우수모델을 공유하는 전국 단위의 대표 네트워크 행사로, 지역활성화·주거환경개선 등 총 7개 분야로 공모·평가가 진행됐다.

순천시는 이번 경진대회의 지역활성화

순천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역세권 마을카페 기반의 민간협력·상생모델로 경제활력 성과 인정

우수사례(경제활력 분야)에 「역세권 상생공간, 플라워카페」를 출품했으며, 순천역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플라워카페(마을카페)를 중심으로 한 민간참여 확대, 지역 상권 협력, 지역경제 회복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0억 원을 투입해 생활SOC 확충, 생태비즈니스센터 등 거점공간 조성,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마을조합이 운영하는 플라워카페

는 순천의 생태자산을 담은 로컬브랜드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을 통한 연대형 상권모델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과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력 성과를 창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지역상권과 협력을 강화해 경제 활력이 살아있는 도시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양시, 제5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모집

평등한 참여, 모두가 주인공! 여성친화도시 광양!

광양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제4기 시민참여단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제안과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모집 인원은 30명 이내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제안 및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선발된 참여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

동하게 되며, 주요 활동으로는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 정책 제안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및 공공시설 모니터링 ▲생활 속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의견 제시 ▲정기회의 및 교육 참여 등이 있다.

신청 방법과 세부 활동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과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은 시민의 경험과 시각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며 "광양시는 그동안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제안과 현장 중심 모니터링을 지속해 왔다. 일상에서 느낀 불편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9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이 참여하는 '든든한 식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요리하며 정을 돈독히 하고,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도 모색해보는 이 사업은, '육전키트 체험'과 '영암 맛 김치 꾸러미 체험'으로 이뤄졌다.

육전키트 체험은 참여 가족이 부담 없

영암군 드림스타트, 든든한 식탁 프로그램 진행

육전키트, 영암 맛 김치 꾸러미 체험으로 가족의 정 돈독히 다져

이 따라 할 수 있도록 마련돼 요리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도 즐거움을 줬다.

영암 맛 김치 꾸러미 체험은 지역 농산물로 가족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프로그램은 아동에게는 전통 식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키우는 계기를, 보호자에게는 가정 내 식생활을 점검하고 건강

먹거리를 선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영암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 키트를 전달하고 체험을 지원했다.

유미경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